

# 디자이너 자질은 이론 아닌 감각에서 비롯

95한국팩스타 대상 영광의 주역

구규우/(주)애경산업 디자인실 실장

**지난** 7월12일 KIDP에서는 한국팩스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팩스타 콘테스트 부문에 총 150점의 작품이 출품하여 23개 작품이 수상하였고 공모전에는 총 81점이 수상하였다.

이날 콘테스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주목을 받았던 애경산업 주식회사의 구규우 디자인실 실장은 지금의 애경산업이 패키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국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그는 타 화장품회사에서 화장품 용기 패키지디자인을 하기 시작하여 91년 10월 애경산업이 화장품 업계에 뛰어 들면서 애경산업 디자인실로 자리를 옮겼다.

생활용품이 주 생산품목인 애경산업에서 화장품 용기와 패키지디자인 등을 주로 하며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 실장은 "제가 처음 애경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희 회사가 유니레버사와 합작회사인 관계로 그다지 패키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애경이 독립하면서 자사만의 독특한 패키지가 요구되어 회사 경영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개발원에서 주최한 우수포장상품선정제 및 우수포장성공사례에서 모두 입상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인 수상이 이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애경은 이외에도 94한국팩스타, 월드스타상에 이어 이번 95한국팩스타에서는 드디어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 구성된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팀웍이 잘 맞아 관리자로서 늘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구 실장은 모든 작업이 컴퓨터로 진행되어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고 능률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자사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디자인을 함에 있어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다. 이번에 수상한 아미앙스 색조화장품 제품도 케이스를 오픈하는 부분을 크게 하고 용기의 두께도 여성의 분위기에 맞도록 얇게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많은 데코레이션을 선호했던 것과 달리 전통적인 기와와 우아한 선을 심플하게 표현하고 칼라도 코발트 색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다른 제품에 맞선 새로운 변혁이라 볼 수 있다.



▲ (주)애경산업 구규우 디자인실 실장

10년 이상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활동을 하며 현재는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전문인력 확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을 문제로 꼽고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위주의 교육보다는 진정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감각향상을 위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면 컨설턴트를 해보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디자이너들에게 아집을 버리고 시각과 감성을 향시 열어 둘 것과 자기영역이 아닌 곳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라고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패키지디자이너가 그다지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는 패키지 디자이너도 창조자로서 이미 인식되고 있는데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예술적인 평가를 하는 시각의 차이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내 패키지 디자이너들의 자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러기 위한 디자이너들이 더욱더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

이선하 기자